

제 1 회

서울시민 예술축제

감성
충전

꿈꾸는 연극제

일시

2005.11.25~27
오후 5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1층)

주최

연남동
아트센터
서울문화재단

후원

HV Seoul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여성
Seoul Women's Foundation

다양한 삶의 희노애락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극은 시공을 초월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신적인 어머니,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고뇌하는 젊은이, 꿈을 잃어버린 채
현실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무대 위의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은 우리 가족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주인공들의 즐거움, 환희, 고뇌, 흐느낌이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삶을 표현하고 삶속에서 희망을 찾는 아름다운 시민예술가들의 무대가
11월 25~27일 3일간 펼쳐집니다. 환상적인 뮤지컬, 웃음이 절로 나는 코미디,
삶의 지혜가 충만한 창작극, 새롭게 보는 고전극 등 무더져가는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웃으면서 참았던 울음과 고뇌를 함께 토해낼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더 따뜻한 겨울, 시민예술가들의 열정적인 무대에 참석하시어
훈훈한 감동과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유 인 촌



● 사회 _ 길성원(뮤지컬 배우)

첫째날 _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

- 경북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연극반 “해밀”
- 고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 인터미션 /
- 강남주부극단 “유리구두” ● 경희대학교 총연극회 “경희극장”

둘째날 _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 한영고등학교 연극부 ● 동국대학교 극예술연구회
- / 인터미션 / ● 극단 불꽃 ● 광진문화원 뮤지컬반 ● 극단 무리

셋째날 _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

- 라임라이트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연극회” / 인터미션 /
- 꾸러기 인형극단 ●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연극반
- 극단 틈새

※ 공연사정에 따라 팀 순서나 공연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북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연극반 "해밀"

해밀- 비온 뒤의 맑게 개인 하늘

연극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하고 서로간의 협동과 안내심, 나아가서 우정을 나타내는 공연

연출: 이정석

작: 해밀 공동창작

참가자: 김방원 외 14명

경북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연극반 "해밀"은 32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조민수, 방주란 등 많은 졸업생들이 방송이나 연극계에서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서울시연극경연대회 단체대상, 2001년도 동국대전국연극경연대회에서 단체대상 수상, 2002~2004년도 우수단체상을 수상, 특히 올해에는 교사와 학생합동공연을 통하여 돈독한 사랑이 싹트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굿 닥터

평범?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연출·각색: 김병주

원작: 닐 사이먼

참가자: 김선혁 외 14명

고대극회는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 선후배 합동공연, 제88회 정기공연, 제48회 워크숍을 잘 치루어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발판삼아 열정과 꿈의 무대를 한번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이 비상하는 고대극회, 그 꿈과 열정을 함께 느껴보십시오.





강남 주부극단 “유리구두”

록 뮤지컬 “가스펠”

마태복음을 “춤”과 “노래”와 코믹한 퍼포먼스식의 극으로 재밋게 풀어낸 깊은 감동의 공연물

연출: 김학재 원작: 존 마이켈 테블락
 개작: 손영실 각색: 김지예
 참가자: 손경옥 외 11명

1993년 창단, 강남에서 활동해 온 주부극단입니다. 1997년 부터 매년 개최된 “전국주부연극제”에 참여하여 대상, 우수상, 연기상 등 많은 상을 받은 실력있는 극단입니다. 제14회 정기공연 겸 소아암어린이돕기 교회순회 자선공연으로 “뮤지컬가스펠”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뮤지컬가스펠”의 출연진 열명의 열정을 가득담아 “서울시민예술축제”를 더욱 빛낼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총연극회 “경희극장”

로미오와 줄리엣 - 사인사색

잘 알려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내면의 모습이 함께 보여주는 색다른 재미를 보여줍니다.

연출: 현종현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각색: 김용일
 참가자: 최아영 외 6명

영상매체에 익숙해지는 현대의 흐름 속에서 스크린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오로지 무대위의 열정과 땀냄새로 관객과 대화를 시도하는 경희대학교 총연극회 “경희극장”입니다. 매번 교내 정기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해와서 이처럼 큰 외부공연에 출연한다는 것을 행운으로 여기며, 부족하지만 언제나 그럴듯 열정과 연극에 대한 애정으로 담대히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열정이 그리고 관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공연을 함께 할 서울시민들과 하나되어 웃고 울었으면 합니다.



한영고등학교 연극부

새들은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는다

연극부 학생들간의 갈등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우리들이 추구해야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극

연출·각색: 심상면

원작: 김명화

참가자: 전재현 외 12명

1985년 이강백작 "다섯"으로 첫출발한 연극부는 동량청소년 연극제에서 2002년 "다녀왔습니다"로 대상을 수상하고 대산문화재단 서울청소년연극제에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교육감상을 수상한 실력있는 고등학생 동아리입니다. 입시준비로 바쁜날들로 보내고 있지만 열심히 연습하여 제1회 서울시민예술축제에서 좋은 기량을 발휘하고 학생들의 연극활동기회를 확장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어떤 고학번의 마지막 연기

졸업을 앞둔 고학번의 고민, 연극을 하고 싶지만 집안 사정상 취업을 해야만 하는 대학교 고학번의 이야기

연출·각색: 임진규

원작: 이근삼(어떤 노배우의 마지막 연기)

참가자: 신동준 외 6명

동국대학교 극예술연구회는 1974년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연예술을 통한 대학문화 발전과 대학인으로서의 자아실현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설립된 동국대학교 내의 순수한 연극공연단체입니다. 아마추어 연극은 도전과 실험이 항상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정신으로 순수하게 관객과 만나겠습니다.



극단 불꽃

창작심리극 “잊혀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란 무엇인가?
창작심리극 “잊혀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연출·작: 김민영

참가자: 남화승 외 11명

어느 것 하나 정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 오늘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명도 진보도 없습니다. 저희 “극단 불꽃”은 부족한 것에 대하여 도전함으로 과감하게 전진하여 뛰어오르려는 노력을 보여주겠습니다. 혹시, 빈 강통처럼 겉으로만 요란한 잡음을 내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 불꽃”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발전하는 참다운 연극인의 모습으로 변화하겠습니다.

광진문화원 뮤지컬반

뮤지컬 “평강이야기”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아버지의 불화로 집을 나온 평강 앞에 나타난 순진한 바보온달과의 풋풋하고 따스한 사랑이야기

연출·각색: 이동선

작: 이지현

참가자: 신우영 외 14인

“광진문화원 뮤지컬반”은 뮤지컬을 사랑하고 직접 느끼고 싶어하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순수아마추어동호회입니다. 이번 서울시민예술축제를 통해 뮤지컬의 순수함과 작품의 깊은 뜻을 모두가 함께 호흡하고자 하며, 나이가 아마추어 예술동호회인들이 문화향유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예술문화를 창작보급하는 주역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극단 무리

바다로 가는 기사들



자연과의 불가항력적인 투쟁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오히려 내면적인 승리를 거두는 한 평범한 여인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

연출: 이선민

작: 존 밀링톤 썅

참가자: 김성훈 외 22명

“극단 무리”는 1991년에 연극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든 아마추어 직장인 극단입니다. “극단 무리”는 총 41회의 정기 공연을 통하여 순수 아마추어로서 실험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여왔습니다.

“극단 무리”는 아마추어이면서도 공연의 질에 있어서는 프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서울시민예술축제에서도 좋은 공연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저희 “극단 무리” 뿐만이 아니라 이번 연극제에 참가한 모든 팀이 좋은 공연으로 아마추어 연극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랍니다.



라임라이트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돌아갈 수 없는 불변의 사랑, 우리네 삶의 진짜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연출·각색: 이영진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개작: 오유경, 강은경, 이희준

참가자: 노승현 외 8명

“라임라이트”는 무대 조명의 한 종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두운 무대 위의 한 줄기 조명처럼 연극에 대한 끝없는 우리의 열정을 보여주는 우리 동아리의 이름입니다. “라임라이트”는 서울대, 이대, 연대, 고대, 한양대 등의 서울 소재 대학 비전공생 연합 연극 동아리로서의 자유로운 색깔을 살려 활발히 창작 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지만 변치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속에서 찾은 우리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연극회”

사랑에 대한 소묘

사랑은 본질적으로 쉽게 알 수 없다. 사랑은 어렵다. 하지만 사랑은 일상이다. 쉽게 만날 수 있다.

연출: 최영호

작: 위성신

참가자: 박한옥 외 8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극동아리 “외대연극회”는 1969년 아마추어 연극 공연을 위해 결성된 동아리이며, 지금까지 총 62회의 정기공연을 하였습니다. 그 역사와 뜨거운 열정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으며 제63회 정기 공연작품을 가지고 이번 서울 시민예술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이 있기에 만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저희 동아리의 사랑에 관한 즐거운 외침을 함께 느껴보세요.



꾸러기 인형극단

하늘로 간 아이들

우리의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인형극화한 인형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오픈 인형극

연출·각색: 김명선

참가자: 김명순 외 4명

1998년 동화를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장난, 말썽, 심술, 욕심, 잠꾸러기들이 모여서 일을 냈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따뜻한 마음으로 현웃을 자르고 꿰매고 푹푹푹...인형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고아원, 장애시설, 도서관, 태백탄광촌 등 작은 곳에서 낮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연극반



너에게로 또다시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이 지켜온 일상에서 탈출해 평소에 그리던 자유로운 여행을 떠난다.

연출: 박종우

작: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연극반 공동창작

참가자: 전숙희 외 5명

‘이제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아요’

연극모임을 처음 시작했을때, 우리들이 연극반 선생님께 당당하게 말한 내용이다.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라고 다른 것이 있을까? 남들보다 조금 더 울었을 뿐이다. 이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행복해지고 싶다... 아니,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 속 안에 벌써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지금껏 살아왔을 뿐이다. 이제 내 안의 행복을 찾아 떠나고자 한다.

극단 틈새



유원지에서 생긴 일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돈임을 보여주는 블랙코미디

연출: 김무지

작: 윤학열

참가자: 조형일 외 10명

“극단 틈새”는 전국직장인연극단체협의회 소속 극단으로 연극을 사랑하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극단입니다. 지난 1997년 관악청년문화학교 연극교실을 모태로 지금까지 총 22회의 정기공연을 펼쳤으며, 근로자연극제에서도 단체상 및 개인 연기상을 다수 수상한 바 있습니다.

무대가 꺼져 없어지는 그날까지 틈새인들의 연극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 입니다.

연극제 공연장
오시는 길



電話 - 5601, 9408, 9412

SCAF

SEOUL CITIZENS' ARTS FESTIVAL



INVITATION
초대합니다

감성충전
꿈꾸는 연극제

※ 본 권으로 2인까지 선착순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공연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

일 시 : 2005년 11월 25~27일 오후 5시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1층)
공연문의 :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부
(Tel. 02-3789-2147~9)